

접속 관계에서 본 시조 연구*

임 종 찬**

차 례

I. 서론

III. 결론

II. 중장과 종장의 접속 관계 양상

I. 서론

시조는 초장·중장·종장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텍스트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조의 각 장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서 시조라는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각 장들의 연결은 각 장 사이에 있는 연결 기제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살피는 것은 시조의 전체 의미 파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시조가 정형시라고 한다면 그 정형의 의미를 의미 연결 형태에서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본고의 목적은 정형시조의 각 장 사이에 어떠한 연결 기제들이 있는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를 살피고, 그것이 시조의 전체적인 의미 형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연결 기제들의 의미 기능을 통하여 정형시조의 전형적인 연결 양상을 살피고, 정형시조의 의미적 완결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형시조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기 위해서 현대시조를 창작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적 연결을 통하여 시조의 형식적·내용적 완결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중국 한시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다. 시경 시대를 지나 漢에 와서 오언체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평측과 압운을 중시하는 풍조가 생겼고, 唐代에 와서야 近體詩인 律詩와 絕句로 발전하여 한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¹⁾ 그 뿐 아니라 기승전결이라는 의미단락을 두어 이것끼리 조화롭게 연결되어야만 한시형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시조도 일찍부터 시조의 형식 논리를 다듬어서 정형시로서 모자람이 없도록 노력하여 왔다고 한다면 시조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 문학 시장에 당당히 수출되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였고 아직도 시조의 창작 원리는 물론이고 형식 논리조차 제대로 연구된 결과가 흔하지 않아서 시조 시인 사이에서조차도 시조 형식 그 자체를 불안정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시조의 의미 연결 방식, 특히 어떤 연결어를 활용하여 시조의 각 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살핀 것이다.

Ⅱ. 중장과 종장의 접속 관계 양상

여기에서는 시조의 각 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1) 윤정현 편(2001) 서문 참조.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시조 작품들에서는 각 장의 연결 기제가 접속 부사의 형태로 제시되기보다는, 주로 접속 어미의 형태로 실현되거나 문장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장이 문장의 종결형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연결의 양상을 문맥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맥적인 연결의 양상도 결국은 접속 어미나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 장의 접속 관계를 접속 부사 또는 접속 어미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볼려 하는 것이다.

먼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정형시조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러므로’ 등과 같은 접속 조사들을 각 장들 사이에 상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접속 부사들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그 의미적인 연결 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이들 접속 부사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그리고: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ㄴ. 그래서²⁾: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2) 여기에는 ‘그러니’도 포함시켰다. ‘그러니’ 또는 ‘그러하니’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즉, 기본형인 ‘그렇다(그러하다)’에 어미 ‘-니’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전에서는 ‘그러니’를 접속 부사로 보는 경우도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그러하다’의 뜻은 ①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 ②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하는 의미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쓰임에 따라 ‘그러니’로 써야 할 경우 ‘그래서’로 써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① 듣기 싫다. 그러니 그만해라, ② 듣기 싫었다. 그래서 그만해라 했다.”와 같이 ‘그래서’의 후행문은 명령이나 제안문이 올 수가 없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와

때 쓰는 접속 부사.

ㄷ. 그런데³⁾: 「1」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 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

「2」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

ㄹ. 그러면: 「1」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2」 앞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전제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쓰는 접속 부사.

ㅁ. 그러므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

그러나 위 접속 부사에 제시된 의미 기능은 기본적인 의미로 제시된 것이지, 모든 경우를 망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시조 작품들에서는 접속 부사가 실현되기보다는 연결 어미에 의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연결 어미가 실현되지 않고 문맥에 따라서 그 접속 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 이들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시조 작품들 속에서

‘그러나’가 함께 쓰일 수가 있다. 환경적인 경우에 따라 ‘그래서’와 ‘그러나’가 같게도 또는 다르게도 쓰인다고 본다. 장기열, 「국어 접속부사의 특성과 그 기능」, 『福祉行政研究』 제 19집, 2003. 참조.

- 3) 본고에서는 ‘그런데’의 의미 영역이 ‘그러나’의 의미 영역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그러나’를 ‘그런데’에 포함시켰다. ‘그런데’와 ‘그러나’도 환경에 따라 달리 쓰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앞 문장에 대한 국면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러나’가 ‘그런데’와 함께 쓰이지만, 앞 문장과 후행 문장과의 대립·대조의 경우에는 ‘그런데’보다는 ‘그러나’가 자연스럽다. 하지만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① 비가 왔다. 그런데 땅이 젖지 않았다. ② 비가 왔다. 그러나 땅이 젖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다 하자. 이 ②의 경우 ‘그러나’는 ‘그런데’에 대응어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①의 ‘그런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의 ‘그런데’이고, ②의 ‘그러나’는 ‘그런데’를 대신한 대응어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 어학자들의 자문을 얻고 싶다.

나타나는 초장과 중장의 관계, 중장과 종장의 관계, 초·중장과 종장의 관계, 초·중·종장의 관계 속에서 이들 접속 관계의 의미를 파악해야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의미적인 연결 관계에서 볼 때, 초장과 중장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초·중장과 종장과의 의미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 편의 시조가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종장에서 그 내용이 완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초장과 중장이 종장에서의 의미 마감을 위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가를, 초장과 중장이 ‘그래서’라는 접속 부사로 종장과 연결되는 유형을 ‘그래서’형, ‘그런데’라는 접속 부사로 연결되는 유형을 ‘그런데’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그래서’형

‘그래서’형은 초·중장과 중장이 사건의 시간적 선후 관계 또는 인과적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초장과 중장은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데’ 등으로 연결되어 다시 종장과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었다.

1) 그리고 +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장과 중장이 ‘그리고’로 접속되고, 이것이 다시 종장과 ‘그래서’로 연결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1) ㄱ. 萬壽山 萬壽峯에 萬壽井이 잇더이다

그 물로 비진 술을 萬年酒라 헛더이다

진실노 이 齣 곳 잡으시면 萬壽無疆호오리다 <大東 315>

ㄴ. 이런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허리

萬壽山 드렁츨이 얼거진들 그 엇더허리

우리도 이긋치 얼거져 百年까지 누리이라⁴⁾ <太宗, 瓶歌 797>

ㄷ. 가마괴 눈비마자 희는듯 검노미라

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오라

님 向흔 一片丹心잇싼 變흔 쏘이 이시라 <朴彭年, 海一 25>

먼저 이 작품들은 모두 각 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 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없지만 문맥을 통하여 앞과 뒤 문장의 의미를 통해 접속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1)의 작품들은 모두 초장과 중장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 부사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같은 의미 기능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1ㄱ)에서는 ‘나열’이 중심 의미로 나타나고, 동시에 첨가의 의미도 드러나는데, (1ㄴ)에서는 ‘첨가’가 중심 의미로 나타나면서 나열의 의미가 나타난다. 한편 (1ㄷ)에서는 까마귀가 아무리 흰 눈을 맞아도 검은 것처럼, 밤에 비치는 달 또한 밝다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강조’의 의미가 드러난다.

(2) 목 붉은 山上雉와 회에 안즌 松骨이와

집 압 논 푸살미 고기 엇는 白鷺 | 로다

草堂에 너희 아니면 날 보이기 어려워라 <瓶歌 595>

(2)는 초장과 중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山上雉’, ‘松骨이’, ‘白鷺’라는 단어들의 대등 접속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장의 접속이 아니라 단어의 접속이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章으로서의 한 의미 형태를 완성하지 못하고 다음 章과의 연계 하에 한 의미 형태를 완성하고 있으므로 시조로서의 파격인 셈이다.

4) 이 작품은 ‘그리고+그래서’ 또는 ‘예를 들면+그래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3) ㄱ. 샷샷세 되롱의 입고 細雨中에 호피 메고
 山田을 훗미다가 綠陰에 누어시니
 牧童이 半羊을 모라다가 좀든 날을 쯤와다 <金宏弼, 瓶歌 72>
- ㄴ. 千萬里 머나먼 길히 고은님 여희웁고
 니 ㅁ음 들디 업셔 냇ㄱ의 안자시니
 저 물도 니 은 ㅁㅎ여 우리 밤길 네눗다 <王邦衍, 瓶歌 59>
- ㄷ. 瑤空에 들 붉거늘 一長琴을 빗기 안고
 欄干을 디혀 안자 古陽春을 톡온 말이
 엇더타 님 향흔 시름이 曲調마다 나느니 <張經世, 沙村集>
- ㄹ. 활지어 팔에 걸고 칼 ㄱ라 엽히 초고
 鐵甕城邊에 筒箇 베고 누어시니
 보완다 보와라 소리에 좀 못드러 호노라 <林晋, 瓶歌 511>
- ㅁ. 너히 도타 호고 남 슬흔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호고 義 안이여든 좃지 말니
 우리도 天性을 직히여 삼긴 디로 호리라 <朱義植, 瓶歌 390>
- ㅂ. 大棗 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쓰드르며
 베빈 그르헤 게는 어이 느리논고
 술 익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黃喜, 詩歌 27>
- ㅅ. 金生麗水ㅣ라 혼들 물마다 金이 나며
 玉山崑崗이라 혼들 玉이 나라
 아모리 女必從夫ㅣ들 님마다 즈츄라 <瓶歌 714>
- ㅇ. 이성저성 다지니고 호롱하롱 님 일업니
 功名도 어근버근 世事도 싱슴상슴
 每日에 혼 齧 두 齧ㅎ여 이렇저렇 호리라 <瓶歌 831>

(3)은 크게 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3ㄱ~ㄹ)은 연결 어미 ‘-고’로 초장과 중장이 연결되어 있다. 곧 초장과 중장이 대구의 형식을

취하면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어 종장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3口~스)은 대등적 연결 어미 ‘-(으)며’로 연결되어 초장과 중장을 대등적으로 연결하면서 ‘나열’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이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어 종장과 연결되었다. (30)은 초장과 중장이 ‘나열’ 또는 ‘첨가’의 의미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종장과 한 의미 단위로 연결되었다.

(4) ㄱ. 興亡이 有數호니 滿月臺도 秋草 | 로다

五百年 都業이 牧笛에 부쳐시니

夕陽에 지나는 客이 눈물 계워 호노라 <元天錫, 瓶歌 515>

ㄴ. 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츠노미라

낙시 드리오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無心호 달빛만 싹고 뵈 빈 비 저어 오노미라

<月山大君, 源國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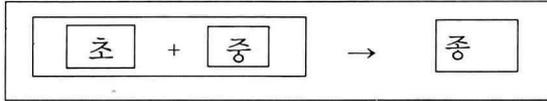
ㄷ. 綠鬃霜蹄 술 지게 먹여 시니물에 써서 타고

龍泉雪鏢 들게 ㄱ라 다시 썬혀 두러메고

丈夫의 爲國忠節을 적셔볼가 호노라 <崔瑩, 瓶歌 799>

(4ㄱ~ㄴ)은 초장이 한 문장으로 완결되어 있고 접속어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중장과 의 관계는 문맥에 따라 추출해야 한다. 이 때 초장과 중장은 각각 대등 나열의 접속 관계를 나타낸다. (4ㄷ)은 각 장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이 어미 ‘-고’로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모두 대등 접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듯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접속 양상은 차이가 있다. 즉, 초장과 중장은 대등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중장과 종장은 연결 어미의 형태에 따른 접속 관계라고 보기보다는 문맥적인 연결로 보아야 한다. 즉, 종장은 초장과 중장의 내용에 대한 결과로 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왜냐하면 + 그래서

이것은 초장과 중장이 ‘왜냐하면’의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이것이 다시 종장과 ‘그래서’라는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5) ㄱ. 五丈原 秋夜月에 어엿불슨 諸葛武侯

竭忠報國다가 將星이 썩러지니

至今에 兩表忠臣을 못니 슬허호노라 <郭興, 瓶歌 49>

ㄴ. 시벽비 일긴 날의 일거스라 아희들아

뒷 뵈 고스리 하마 아니 즈라시라

오늘은 일 것저 오너라 시 술 안주호리라 <積城君, 瓶歌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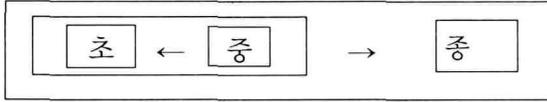
ㄷ. 이러니 저러니 호고 날 드려란 雜말 마소

내 당부 님의 盟誓 오로다 虛事|로다

情밧긔 못일 盟誓를 호여 무슴 호리오 <瓶歌 815>

(5ㄱ)은 ‘諸葛武侯’를 주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호격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장의 연결로 본다면 호격어로 처리해야 할 것이고, 바로 뒤에 있는 ‘竭忠報國다가’와의 관계로 본다면 주어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5ㄴ~ㄷ)은 초장과 중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실현되어 종장과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그러면 +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장과 중장이 조건이나 가정의 연결 기능을 가진 ‘그러면’으로 접속되어, 다시 종장과 ‘그래서’라는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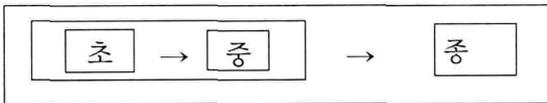
(6) 회여 검을찌라도 회는 것시 설우려든

회여 못 검는 디 늬의 문져 힐 쓸 어이

회여서 못 검을 人生인이 그를 슬흐 흐노라 <海一 376>

(6)은 초장이 조건 또는 가정의 의미로 중장과 연결된다. 이것이 다시 종장의 ‘슬흐 흐노라’의 이유가 된다. 이 때 중장과 종장이 서로 연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 초장과 중장이 함께 종장과 연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문맥으로 볼 때 중장의 내용만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장과 중장이 함께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이것이 종장과 연결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그런데 + 그래서

초장과 중장 사이에 전환의 ‘그런데’라는 접속어를 상징할 수 있고, 이

것이 다시 종장과 인과의 '그래서'라는 접속 관계를 상징할 수 있는 경우이다.

- (7) ㄱ. 烏騶馬 우는 곳에 七尺長劍 빗겨논디
 百二函關이 뉘 썩이 되단 말고
 鴻門宴 三舉不應을 못니 슬허호노라 <南怡, 瓶歌 61>
- ㄴ. 朔風은 나무긋티 불고 明月은 눈 속에 촌디
 萬里邊城에 一長劍 집고셔서
 긴 폭름 큰 혼 소리에 거칠 거시 업세라 <金宗瑞, 瓶歌 325>
- ㄷ. 白雪이 즈즈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梅花는 어니 곳의 휘엿는고
 夕陽의 호을노 셔셔 갈 곳 몰나 호노라 <李穡, 瓶歌 51>
- ㄹ. 간 밤에 우던 여홀 슬피 우러 지너여다
 이제야 生覺호니 님이 우러 보니도다
 져 물 거스리 흐리고져 나도 우러 네리라 <瓶歌 589>
- (8) ㄱ. 碧梧桐 시든 뜻은 鳳凰을 보려터니
 나 시든 타신가 기드려도 아니온다
 無心호 一片明月이 뵈 가지에 걸여세라 <瓶歌 705>
- ㄴ. 늙어 말녀이고 다시 져머 보려터니
 靑春이 날 속기고 白髮이 거의로다
 잇다감 곳밭츨 지날 제면 죄 지은듯 호여라 <樂서 386>

(7ㄱ~ㄴ)은 초장과 중장이 형태적으로 '-(으)ㄴ/는데'라는 어미로 연결되어 있고, (7ㄷ~ㄹ)은 초장이 한 문장으로 완결되어 있으며 전환 관계로 접속되어 있다.

(8)은 형태적으로는 인과의 연결 어미인 '-(으)니'로 연결되어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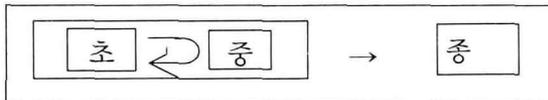
의미적으로는 ‘그런데’로 접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결 유형에 포함시켰다.

(9) 春山에 눈 노기는 바람 건듯 불고 간 더 엷다

저근듯 비러다가 머리 우희 불이고저

귀 밋티 히 무근 셔리를 녹여볼가 호노라 <禹倬, 瓶歌 45>

위 작품은 각 장이 한 문장으로 종결되어 있으며, 접속 부사나 어미가 실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그 연결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초장에서는 봄바람이 이미 사라졌지만, 중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불러 일으켜 시적 화자의 머리에 불리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장에서는 그 결과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초장과 중장은 역접 관계로, 중장과 종장은 인과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의미 연결 관계는, 초장은 중장에 대한 배경이 되고, 중장은 초장에 대해 전경이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그런데’型

‘그런데’형은 초·중장과 종장이 역접 관계나 전환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연결 관계는 주로 ‘그리고,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에 의해 드러난다.

1) 그리고 + 그런데

이 경우는 초장과 중장이 ‘그리고’라는 첨가, 대등, 나열의 접속 관계

를 나타내고, 이것이 다시 종장과 전환 또는 역접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10) ㄱ. 흰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흰 손에 막디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白髮 막디로 치라트니

白髮이 제 묻져 알고 즈림길로 오더라 <禹倬, 瓶歌 47>

ㄴ. 功名과 富貴란 餘事로 혀여 두고

廓廟上 大臣네 盡心國事 헉시거나

이렁성 저렁성 헉다가 내종어히 헉실고 <李德一, 漆室遺稿>

ㄷ. 두고 가는 의 안과 보니고 잇는 의 안과

두고 가는 의 안은 雪擁藍關에 馬不前 썬이언이와

보니고 잇는 의 안은 芳草年年에 恨不窮을 헉노라 <瓶歌 859>

ㄹ. 天心에 돛은 들과 水面에 부는 불암

上下聲色이 一中에 갈렸는이

살림이 中을 타 낫신이 어짐이는 흰 가지라<朱義植, 海一 264>

(10ㄱ~ㄴ)은 초장과 중장이 ‘-고’라는 연결 어미로 접속되어 있고, (10ㄷ)은 접속 조사인 ‘-과/와’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전자가 문장의 연결이라면, 후자는 단어의 연결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10ㄷ)에서는 초장과 중장이 의미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단락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10ㄹ)에서 초장과 중장의 접속 관계는 어떤 형태로도 실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내용상 초장에서 ‘달과 바람’이라는 단어 접속을 나타내고, ‘上下聲色’ 또한 ‘달과 바람’과 함께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단어들의 접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때는 단어를 연결해 주는 ‘-과/와’가 없고 구(句)가 단절되어 있는 듯하므로,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리고’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 (11) ㄱ. 일심어 느긋 뛰니 君子의 德이로다
 風霜에 아니 지니 烈士의 節이로다
 至今에 陶淵明 업스니 알 니 덕어 호노라 <成汝完, 源國 120>
- ㄴ. 이시럼 브디 갈짜 아니 가든 못 흘쏬야
 無端이 슬튼야 님의 말을 드렸는야
 그러도 하 애도래라 가는 뜻을 날러라 <成宗, 海周 8>
- ㄷ. 江西의 議論이 높고 茶飯은 蒲塞로다
 菽粟의 맛술 아던동 모르던동
 술리에 흔 바괘 업스이 갈 길 몰나 호노라 <張經世, 沙村集>
- ㄹ. 花灼灼 범나의 雙雙 柳青青 괴소리 雙雙
 늘즘승 길즘승 다 雙雙 호다마는
 엇디 이 내몸은 혼자 雙이 업는다 <鄭澈, 松星 75>

(11ㄱ~ㄴ)은 각 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되어 있고, (11ㄷ)은 중장과 중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결되며 (11ㄹ)은 각 장이 모두 연결되어 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먼저 (11ㄱ)은 초장과 중장의 연결 관계로 볼 때 대등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의 자질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첨가라고 볼 수도 있다. 중장은 앞서 말한 바를 뒤집어 결론에 이르고 있으므로 역접의 관계에 있다. (11ㄴ)은 초장과 중장이 동일하게 의문형으로 종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접속 관계는 문맥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일한 문장 유형으로 종결되었고 이것이 중장에서 시적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들이 대등적으로 접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ㄷ)은 초장이 완결된 문장이고 중장과 중장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다. 이 때 초장과 중장에서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대등적으로 나열하고 덧붙였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그것이 어찌되었든(또는 어찌하였든) 시적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

었다.⁵⁾ (11ㄷ)은 지금까지 다른 접속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초장에서는 각 개체들이 짝을 지어 있음을 보이고, 중장에서는 이러한 개체들의 부류 단위로 확장하여 짝을 짓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중장의 3구째까지가 초장과 함께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서 중장의 4구에 있는 ‘흐다’와 결합하여 한 의미 단위를 이룬다. 그러므로 대등 접속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부류, 즉 상위어로 나아가는 확장 관계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⁶⁾

(12) ㄱ. 泰山이 높다 흐되 하늘 아래 뵈히로다

오르고 쓰 오르면 못 오를 理 업건마는

스롭이 제 아니 오르고 뵈흘 높다 흐돏다⁷⁾ <楊士彦, 源國 109>

ㄴ. 兄弟 열히라도 처셔믄 흐 모미라

흐나히 열힌주를 뉘 아니 알리마는

엇더더 욱시메 걸여 흐 묘민 주를 모르느뇨

<李叔樑, 汾川講好歌>

(12)의 작품은 모두 초장이 한 문장으로 완결되고, 중장과 종장이 연결 어미로 접속되어 한 문장을 이루고 있다. 초장에서는 어떤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면서 그것에 의해 나타나는 인식의 결과를 보여 준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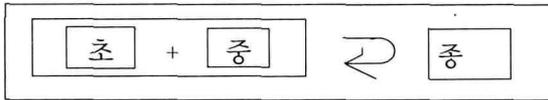
5) 이 때 초·중장과 종장의 접속 관계를 완전히 역접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전환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앞에 제시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시적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파악되므로 역접에 포함시킨 것이다.

6) 이 경우 ‘그래서’라는 인과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초장의 내용에 대하여 ‘이처럼, 이와 같이’ 등과 같은 접속어로 요약, 정리되는 연결 관계로 보는 것이 의미 해석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기존의 접속 관계로는 이에 대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가 나타내는 첨가의 의미 기능을 확장 적용시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7) 이 작품은 ‘그리고+그런데’ 또는 ‘그래서+그런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에서 ‘그러니’라는 접속 부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장과 종장은 모두 ‘-마는’이라는 역접의 연결 어미로 접속되어 있고, 연결 어미가 없다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충분히 역접의 관계로 접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그래서 + 그런데

이 경우는 초장과 중장이 ‘그래서’라는 인과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고, 이것이 다시 종장과 전환 또는 역접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 (13) 가. 秋江 불근 들에 一葉舟 혼자 저어
 낙대를 펼쳐 드니 자는 白鷗 다 놀란다
 어디서 一聲漁笛은 조차 興을 돕느니 <金光煜, 靑珍 154>
- 나. 草堂에 일이 업서 거문고을 베고 누어
 太平聖代를 꿈에나 보려 하니
 門前의 數聲漁笛이 잠든 날을 씨와라 <柳誠源, 瓶歌 65>
- 다. 碧海 | 竭流後에 모래 모허 섬이 되여
 無情芳草는 해해마다 푸르르되
 엇지타 우리의 王孫은 歸不歸를 하느니 <具容, 源增 9>
- 리. 간 밤의 부든 바람 눈 서리 치단 말가
 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물며 못 다 핀 곳치야 일너 무엇 흐리오 <俞應孚, 瓶歌 66>

(13가~다)은 초장이 문장으로 끝맺지 않고, 초장과 중장이 ‘-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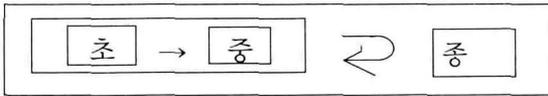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 어미의 의미가 그대로 이들의 접속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13ㄱ)은 초장과 중장이 함께 하나의 의미 단락을 이루고 있고, (13ㄴ~ㄷ)은 전체 장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끝맺어 의미 단락을 이루고 있다. (13ㄷ)은 각 장이 문장으로 끝맺어 있으므로, 문맥으로 그 접속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초장에서는 의문형으로 문장이 끝나 있지만, 실제로는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바람과 눈서리가 쳐서 낙락장송이 다 기울어 간다는 의미로서, 중장과 인과 관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초·중장의 의미 단락이 종장에 와서 시적 화자의 의도를 드러냄에 있어서 전환의 관계로 접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ㄱ. 이 몸이 죽어죽어 一白番 고쳐 죽어
 白骨이 塵土되어 녀시라도 잇고 업고
 님 向흔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鄭夢周, 瓶歌 52>
- ㄴ. 三冬에 뵈웃 님고 岩穴에 눈비 마자
 구름 찢 벗누도 찢 적이 업건마는
 西山에 히지다 하니 눈물 겨워 흐노라 <曹植, 瓶歌 13>
- ㄷ. 눈물이 珍珠라면 흐르지 안케 싸두었다가
 十年後 오신 입을 구슬 城에 안치련만
 痕迹이 이내 업스니 그를 설워하노라 <源增 79>
- ㄹ. 믿음어 어린 後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어너 님 오리마는
 지는 입 부는 바람에 흥혀 권가 흐노라 <徐敬德, 瓶歌 96>

(14ㄱ~ㄷ)은 전체 장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고, (14ㄷ)은 초장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중장과 종장이 한 문장으로 완결된다. (14ㄱ~ㄴ)은 초장이 ‘-아/어(서)’라는 연결 어미로 접속되어 있으므로 선행 사건으로 인하여 후행 사건이 발생한다는 의미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14ㄷ)의 ‘-다가’라는 연결 어미는 본래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문맥으로 볼 때, ‘눈물을 싸 두고 그래서 10년 후에 임이 오면 그것으로 만든 성에 모시려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환이라기보다는 선행 동작(또는 사건)의 결과로서 후행 동작(사건)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초장과 중장의 접속 관계를 전환으로 보지 않고 인과 관계로 본 것이다. 이것이 중장과 전환 또는 역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14ㄷ)은 초장에서 시적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고, 중장과 종장에서 그 이유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과 관계로 접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장과 종장은 ‘-마는’이라는 연결 어미로 접속되어 역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그래도 + 그런데

이 경우는 초장과 중장이 ‘그래도’라는 양보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고, 이것이 다시 종장과 전환 또는 역접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15) 玉을 돌이라 하니 그러도 인드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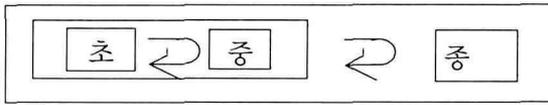
博物君子는 아는 法 잇건마는

알고도 모르는 체 하니 글노 슬허호노라 <洪暹, 瓶歌 176>

이 작품은 초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맺고, 중장과 종장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초장과 중장은 동일한 옥이라는 대상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주체가 어떤 당파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옥과

돌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탄식을 나타낸다. 중장은 초장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서 ‘博物君子’의 경우에는 초장과는 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점에서 ‘그래도’라는 접속어를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과 종장의 관계는 형태적으로도 ‘-마는’이라는 연결 어미로 접속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역접의 관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그러면 + 그런데

이 경우는 초장과 중장이 ‘그러면’이라는 조건, 가정의 접속 관계를 나타내고, 이것이 다시 중장과 전환 또는 역접의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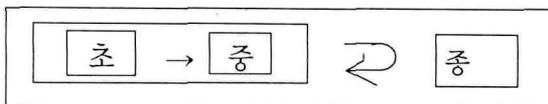
(16) 이 뵈흠 혈어내야 저 바다흠 메오면은

蓬萊 고온 님을 거러가도 불엿만은

이 몸이 精衛鳥 窺트여 바자닐만 흐노라 <徐益, 海一 87>

이 작품은 초장에 ‘-(으)면’이라는 가정이나 조건의 연결 어미가 실현되어 있고, 중장에는 ‘-마는’이라는 역접의 연결 어미가 실현되어 있어서 그 접속 관계를 형태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또한 그 의미적 연결 관계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초·중장과의 연결 관계는 ‘그래서+그런데’와도 유사한 의미형태를 띤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Ⅲ. 결론

이상으로 시조의 초·중장과 종장 사이의 접속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중장과 종장과의 접속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는데, ‘그래서’와 ‘그런데’의 접속 관계가 그것이었다. ‘그래서’는 앞 문의 내용이 뒤 문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종장 앞에 ‘그래서’가 온다면 종장은 초·중장에 대한 결과로 등장하는 경우가 되므로 더 이상 시적 논의를 계속할 수 없게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는 앞의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이는 접속 부사이다. 즉 앞 화제를 부정하거나 이것과 다른 논의를 끌어내어 뒤의 화제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 쓰이는 접속 부사이므로 종장 앞에 이것이 온다면 앞의 시적 논의와 달리 뒤의 논의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종장 앞에 이 말이 옴으로써 종장의 의미가 강화 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시적 논의를 막아버리는 구실을 한다.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의 접속 관계가 동일하면 전통적인 시조의 의미 단위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시적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초장과 중장이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큰 하나의 의미덩어리가 되고 이것과 종장과의 관련 하에서 시조의 의미 형태가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조의 형태다.⁸⁾ 고시조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각 장 사이에 동일한 접속 부사가 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초장과 중장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이것이 다시 종장에 와서 그 의미를 완결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

8) 이 점에 대해 필자는 『고시조의 본질』, 국학자료원, 2006. 33쪽에서 시조의 의미 구조를 다섯 형태로 도식화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조는 초, 중장이 하나의 큰 의미형태가 되고 이것이 종장과의 연관에서 인과적으로 연결되거나 전환적 또는 상반적으로 연결되어 한 편의 시조가 완성된다고 본다.

이다.⁹⁾

시조를 초장 중장 그리고 종장이라 이름 붙인 이유도 초장 중장에서
의 시적 논의가 종장에서 마감됨을 의미하므로 종장 앞에 ‘그래서’ 또는
‘그런데’가 오게 되어 있고 이 점을 살려야만 시조로서의 의미 완결을 보
게 되고 시조 묘미가 살아나게 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고시조 창작에 있어 종장에서 시적 논의가 마감됨을 위
해 종장 앞에 ‘그래서’ 또는 ‘그런데’가 오도록 배려한 작품이 다수를 차
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적절한 시조작품이 있었음도 확인되었다. 나아
가 현대시조 창작에 있어서도 종장에서 시적 논의가 마감될 수 있게 하
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접속 부사, ‘그런데’형, ‘그러나’형, 유기적 결합, 의미 완결

9) 고시조 중에는 초장과 중장 사이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동일한 접속 부사가
반복으로 쓰인 경우도 더러 있다. 이 경우는 시조의 의미가 마무리 되지 못함으
로 해서 부자연스런 시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장 앞에 ‘그래서’ ‘그런
데’가 오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것 역시 시조 종장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선, 「말뭉치 분석을 통한 접속부사의 결속 단위 고찰」,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2007. 141-166쪽.
- 신지연, 「접속부사 ‘그러나’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8, 2005, 한국어 의미학회. 23-17쪽.
- 신지연, 「단락 경계에서의 ‘그러나’의 의미 기능」, 『텍스트언어학』 1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5. 83-107쪽.
- 심재완, 『고시조 천수선』, 형설출판사, 1975.
- 윤정현 편, 『중국 역대 명시 감상』, 문음사, 2001.
- 임유중·박동호·홍재성, 「접속부사의 구문론적 특성」, 『언어학』 제28호, 한국언어학회, 2001. 177-207쪽.
- 임종찬, 『고시조의 본질』, 국학자료원, 2006.
- 장기열, 「국어 접속조사의 특성과 그 기능」, 『복지행정연구』 제19집, 안양대 복지행정연구소, 2003. 175-193쪽.
- 전영옥, 「구어와 문어의 접속부사 실현 양상 비교 연구」, 『텍스트언어학』 2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7. 223-247쪽.
- 진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연구 -‘그러나, 그렇지 만,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의 용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30권, 연세대 한국어학당, 2005. 179-207쪽.
- 차윤정, 「국어 이음말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2000.
- 허 응, 『우리옛말본』, 샘 문화사, 1992. 521-627쪽.

<Abstract>

A Study on the Connective Relations of Korean Sijo

Im, Jong-Chan

The paper aims at identifying what kind of connective relations the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the first and middle statements of the sijo has with last statement. There are two kinds: 'and' and 'but.'

When the 'and' connective relation is employed at the start of the last statement, the former poetic discourse will exist no more, concluded. since the last statement has come as a result of the first and middle statements.

When the 'but' connective relation is employed at the start of the last statement, the latter topic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former topic has been deni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other discourse. And there is no more poetic discourse here.

Korean traditional sijo has a different connective relation between the first and middle statements, and the middle and last statement, each. So, if the same connective relation is employed, it is not fit for the traditional sijo, where the first and middle statements have one semantic unit, which is concluded in the last statement.

In the last statement of the sijo the former topic should be concluded, the 'and' or 'but' connective relation should come at the start of the last statement. Then the whole meaning of a sijo will be concluded, and the reader will appreciate the flavor of the sijo.

Key Words : connective relation, 'and' or 'but' connective relation,
semantic unit